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의료담당
발신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의	사회정책팀(남은경 팀장/ 02-3673-2145)
일자	2017. 1. 11일(수)
제목	[보도자료] 실태고발 시리즈_②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총 2매)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저소득 장기체납 180만 명, 의료사각지대 노출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전셋집 2만3천) -

□ 건강보험 장기체납가구 88%는 월 45만원 이하 소득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세대가 135만 가구를 넘어섰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 약 2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180만 명에 육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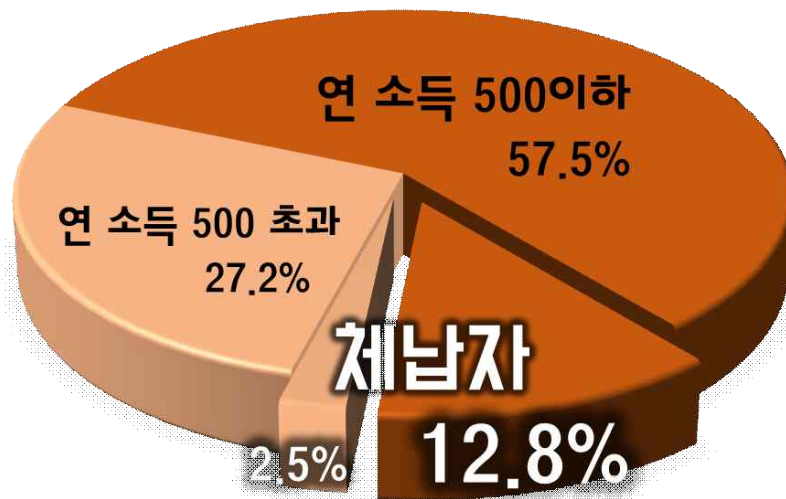
<지역가입자 체납(6개월 이상) 현황>			2016년 6월 기준 (단위 : 명, 세대)	
구분	비율	세대수	비율	인구수
합계	100%	1,352,815	100%	2,141,606
500만원 이하	88%	1,183,744	84%	1,794,012
500만원 초과	12%	169,071	16%	347,594

<지역가입자 보험료 금액별 체납세대 현황>

(단위 : 세대)

보험액별	계
합계	1,352,815
1만원 이하	88,123
1~2만원 이하	346,002
2~3만원 이하	212,988
3~5만원 이하	266,148
5~10만원 이하	262,189
10~20만원 이하	149,052
20~30만원 이하	23,219
40~50만원 이하	4,638
50~100만원 이하	290
100만원 초과	166

<지역가입자 장기체납자 현황>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원/전세주택 2만3천원)

현행 복지안전망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송파세모녀’도 생계형 체납 세대였다. 송파세모녀는 질병으로 인한 실직상태로 소득이 없지만,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기준을 적용해 송파세모녀의 보험료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세모녀는 60세, 35세, 32세 여성 3인으로 구성된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전세가 약 3천만원 주택의 세입자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 의하면 송파세모녀의 월 건강보험료는 4만9천원으로 추정되는데, 성·연령에 2만 6천원, 전월세 주택에는 2만3천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성별과 나이를 경제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유한 주택가격(임대료)으로 경제수준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송파세모녀 건강보험료 산출과정>

○ 송파 세모녀 세대 기본현황(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원	재산(주택)	자동차	소득
세대주(여) 60세	전월세 3,699만원	-	-
자녀(여) 35세			
자녀(여) 32세			

[1단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생활수준 점수 산정

계	경제활동참가율점수	생활수준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소득 점수
	여 60세 : 3.0	900초과 1,500이하	-	-
	여 35세 : 5.2			
	여 32세 : 5.2			
18.8	13.4	5.4	-	-

*재산 점수 : 주택의 30% 반영하고 5백만원 기본 공제

[2단계] 보험료부과점수 합산

계	생활수준등급 점수	재산등급 점수	자동차등급 점수
256점	190점(15등급)	66점(3등급)	-

[3단계] 월 보험료 산정(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월 보험료	장기요양포함
256점	179.6원	45,978원	48,990원

#보험료 계산 방법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참고
(http://minwon.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그러나 송파세모녀와 같이 실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일정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보험료 체납이 불가피하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주용 임대주택 전세금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저소득 세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보험료 장기 연체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 저소득층 보험료 95%는 성·연령/전월세/자동차에 부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부과요소별로 분석하면 성·연령 및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 이외 항목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 부과 현황>

구분		연소득 500만원 이하*		송파세모녀(사례)	
		비율(%)	보험료(월/억원)	비율(%)	보험료(월/원)
계		100%	3,084	100%	48,990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평가소득)	소계	52%	1,599	74%	36,359
	성.연령	21%	655	53%	25,834
	소득	5%	152		
	재산	13%	409	21%	10,525
	자동차	12%	383		
과세소득		0%	0		
재산	소계	43%	1,325	26%	12,630
	과표재산	37%	1,134	26%	12,630
	전월세	6%	191		
자동차		5%	159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건보공단 제공자료_2016년 6월 기준)

□ 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과해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자격구분을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조차 불투명한 성·연령 및 자동차 부과방안을 폐지하고 일정 금액 이하 생활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공평한 부과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끝>

#첨부.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부과방식(총1매)

[첨부]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부과방식

□ 가입자 현황

2016년 6월 현재, 건강보험가입자는 총 5062만명이며, 이 중 지역가입자는 1398만명(28%)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전체 72%인 3663만명이며, 이 중 41%인 2천만명이 피부양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천세대)

가입자 구분		비율(%)	인구수	세대수
계		100%	50,622	23,577
지역	500만원 이하	19%	9,834	5,739
	500만원 초과	8%	4,154	1,773
	소계	28%	13,988	7,512
직장	세대주	32%	16,065	16,065
	피부양자	41%	20,569	
	소계	72%	36,634	16,065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_2016년 6월말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현행 건강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이 가입자를 4개 자격으로 구분하고 보험료 부과요소와 기준을 제각각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경제활동 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낮으면 소득과약이 안된다고 간주해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는 보험료 부과요소를 중복(자동차, 재산 등) 적용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정률(3.26%)로 부과하고, 근로 이외 종합소득 합산액이 7200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가입자별 보험료 부과요소>

가입자 구분	성.연령	자동차	재산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지역	500만원* 이하	○	○(중복)	○	○	○	○
지역	500만원 초과	x	○	○	○	○	○
직장	근로자	x	x	x	△(합계 연 7,200만원 초과 시 부과)		○
직장	피부양자**	x	x	△	△	△	△

*500만원 : 연소득 기준

**피부양자 선정 기준 : 배당·이자소득 4천만원 이하 or 연금소득 4천만원 이하 or 기타·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or 재산 9억원 이하 or. 사업자등록 or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자료 재정리>

http://minwon.nhis.or.kr/menu/retrieveMenuSet.xx?menuId=MENU_WBMAA0202